

존 오스왈트 박사, 이사야, 세션 21, 이사야. 42-43

© 존 오스왈트(John Oswalt)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John Oswalt입니다. 이사야 42장과 43장 21회기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여기 우리 가운데 임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영감받은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셨고,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실 때 다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주에 우리가 멈추었을 때 우리는 41장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에서 바벨론의 정복자 고레스의 노래와 열국의 노래를 알리는 것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두려워하며 우상을 만들기 위해 달려든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이 있으니 곧 나의 친구 아브람의 자손이니라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데려오고 땅 먼 곳에서 불러낸 것이니라 모퉁이에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제가 던진 질문은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중얼거리는 아니오를 듣는다.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좋아요, 그는 그것들을 다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책 전반에 걸쳐 이야기했습니다. 심판은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배의 목적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배를 의도한 것은 4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불의 바람, 불의 바람으로 연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배는 그들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려는 것입니다. 이사가야 성전 바닥에 누워서 “나는 망했고 해체되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습니다. 천사는 그의 입술에 성수를 뿌리기 위해 장미를 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제단에서 숯불을 들고 왔는데 이사가야 '아, 다시 해라, 기분이 너무 좋아'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 생각엔 그가 울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가 '불타요'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멸하려 하신 것이 아니요, 그를 연단하려 하신 것이니라. 이제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입니까?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그는 9절에서 다시 그것을 반복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자, 제가 이 부분, 40장부터 55장까지를 뭐라고 표시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은혜, 구원의 동기와 수단. 그러면 섬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39장의 끝에서 우리가 묻는 질문은 위기 상황에서 신뢰를 단지 일회성 거래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 대답이 은혜라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라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버리기는커녕 너를 나의 특별한 종으로 택했다. 그렇다면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13절에서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경이로움, 그냥 앉아서 닥치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당신이 그것을 하는 동안 나는 여기 앉아서 비판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지만 결국에는
제가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4절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것은 16절과 20절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문구가 세 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여러분에게 묻기
전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 문구가 반복되나요? 이 문맥에서 왜 거룩하신 분을
강조하고 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강조합니까? 좋습니다. 이제 17절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열국과 관련하여 그들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첫째,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당신은 그들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15절과 16절에 보면 열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에게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주제입니다. 첫째, 나라들이 여러분을 징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사용하여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서를 읽을 때 그 흐름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적국들을 사용하여 당신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사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따르는 것과 동일한 도덕법의
지배를 받으며, 결국 그분이 당신을 구속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사용하여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에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열방에게 증거할
네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열방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것과 우리 생각의 대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의 넥타이를 잡고 “예수님을 아시나요?”라고 말하는 증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이사야가 염두에 두고 있던 것과는 다릅니다.

좋아요, 17부터 20까지는 시, 구원의 시입니다. 거기 보이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 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에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실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풍부하게, 응? 그렇습니다. 매우 풍부합니다. 높은 곳에 강이, 골짜기에 샘이, 광야에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 샘물이 되게 하며,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감람나무가 되게 하며, 사막에 잣나무가 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중 하나는 특히 물과 다산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이것들이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죽은 막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려져 다른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는 죽은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방정식에서 제외하지 마십시오. 자, 21~29세기에는 소위 아이돌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41장과 46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시는 장면이 다섯 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끝나거나 거의 끝나게 될 43장에서 두 번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기억하세요.

신은 패배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해 패배하셨습니다. 이 장에서는 "아니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죄는 그분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친구입니다.

아니 아니. 당신의 죄는 그분을 패배시키지 못했습니다. 글썄요, 우리의 죄가 그분을 패배시키지 못했다면 바벨론의 우상들이 그분을 패배시켰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을 법정으로 부르시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인지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너희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당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증거를 가져오면,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일을 우리에게 말하시고,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선을 행하거나 해를 끼치십시오.

우리가 당황하고 겁에 질릴 만한 일을 하십시오. 보라, 너희를 택하신 이는 아무 것도 가증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니 그가 해 돋는 데서 와서 내 이름을 부르리라.

도공이 진흙을 밟듯이 그는 회반죽을 밟듯이 통치자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알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옳다고 미리 알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선포한 자도 없고 선포한 자도 없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도 없나이다. 내가 먼저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들이 여기 있다 하였노라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노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보니 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고, 내가 물어도 대답해 주는 모사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라, 그들은 모두 망상이며, 그들이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의 금속 형상은 공허한 바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는 그들이 미래를 예측하기를 원합니다.

과거 언젠가 실제로 미래에 실현될 구체적인 예측을 했을 때 말해주세요. 이제 여기서도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은 꽤 정교합니다. 내가 반복해서 말했듯이, 신들은 단순히 우주의 힘을 의인화한 존재일 뿐입니다.

태양, 달, 별, 달, 별, 열정, 분노, 힘, 그 모든 것. 그렇다면 태양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말해 줄 수 있나요? 당연히 아니지. 달은 우리에게 끝이 어떻게 될지 말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들은 이 세상, 즉 이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교 세계관은 모든 것이 영원히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에는 목적이 없고 계속해서 작동하는 목적도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교도이고 매우 현대적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거리의 사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인생은 어디에서나 왔으며 아무데도 가지 않는 것이므로 최대한의 편안함과 즐거움, 안전함을 누리며 여행을 즐기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일어난 일을 토대로 누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 원 밖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관점을 가진 사람만이 '아, 특히 외부에 있는 사람이 창조자라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의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주 유명한 독일 평론가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나쁜 일입니다. 이사야는 신들이 항상 미래를 예측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 이사야는 완벽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종류의 터무니없는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들은 Jean Dixon이 미래를 예측했던 것처럼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녀를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들이 옳았다는 퍼지 요인을 충분히 사용하여 예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생활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39장을 기억하십니까? 죽은 자의 추방. 그러자 그는 바빌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리아로의 유배?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망명지는 어디로? 바빌론. 기원전 701년쯤에 그는 바빌론 유배를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대 앗수르 제국의 반역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앗수르 제국은 앞으로 70년의 통치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유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의 종말을 의미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바벨론으로 유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세계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했다.

그는 또한 유배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했고 그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꽤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망명에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추방은 그 문화를 제국의 더 큰 문화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유배의 목적은 독특한 언어와 독특한 종교를 가진 독특한 민족인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고, 유배 생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셋째, 당신의 구원자는 키루스라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WHO? 사이러스 대왕.

키루스 대왕은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어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2이사야를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2이사야를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것을 믿습니다.

첫째, 누군가가 150년 후의 사람들에게 글을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누구도 구체적인 예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것을 예측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으며, 미래를 예측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장에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서 제2이사야를 만난다면 티켓을 반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 책의 주장은 이 책이 훨씬 더 일찍 쓰여졌음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게 주장이군요.

매달리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우주의 의인화된 힘 그 이상임을 보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과거 언젠가 구체적으로 미래를 예측했고 그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그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네, 부탁드립니다. 두가지. 4120의 언급은 키루스에 대한 또 다른 지나가는 언급입니까? 정확히. 정확히. 응. 응.

그리고 예측은 진행되면서 점점 더 구체적이 됩니다. 44장에 이르면 그는 그의 이름을 짓고 그의 정복에 대해 이야기하며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여기 우리 둘이 그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아이돌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사건이다. 41장과 49장 사이에 5번이 있다고 했죠? 46. 46.

감사합니다. 좋아요. 41장. 죄송합니다. 42장.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예.

좋아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자를 보라. 좋아요.

지금까지 하인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혜택이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사용하여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배달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하인을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내 영을 부여할 능력이 있고 그는 다음을 낳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미스파트을 낳을 것이다. 제가 이전에 여섯 번 말했고 6월이 되기 전에는 열두 번 더 말할 것입니다. 정의는 그 단어에 대한 나쁜 번역이 아닙니다.

단지 충분히 크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정의는 단순히 법적 형평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Mishpat은 법적 형평성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법적 형평성이 포함되나요? 전적으로. 보복이 포함되니까? 전적으로.

책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포함되나요? 전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그 모든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리라. 희미하게 타는 심지라도 끄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성실하게 미스파트을 낳으실 것입니다. 그는 미스파트을 세우기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리라. 내 생각엔 그가 요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땅과 땅끝, 해안지대에. 무엇? 개들 뭐해? 기다리다. 기다려은 무슨 뜻인가요? 신뢰하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나요? 그의 지시. 그의 토라. 그분의 언약의 율법.

이제 문제는 이 종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처음 네 구절에 따르면 이 종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좋아요. 없음. 없음.

이 하인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임무. 이 종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미쉬파트을 이 땅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좋은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6절.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의로 너를 불렀다.

무슨 일로 네 손을 잡아줄까? 백성의 언약이요 이방의 빛이니라 이스라엘은 백성과의 언약이 아닙니다. 사실 나는 다양한 맥락에서 그것을 말했다.

옛 언약은 깨졌고 만족을 요구합니다. 맵소사, 저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피를 흘리며 맹세했으나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 신이시라면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돌 판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은 비준을 촉구합니다. 이 종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어떻게든 이 종, 이 종은 옛 언약을 만족시키고 새 언약을 비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사야가 머리를 긁적이며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7절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61장을 보십시오. 42장 7절에 손가락을 대고 61장을 다시 보십시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 주었음을 주목하라. 42.1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을 뜨게 하려고 한 구절씩 앞뒤로 건너뛰고, 결박된 자에게 감옥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7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시며 흑암에 앉은 자를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른 하인입니다.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시키는 연습 중 하나는 Candice가 오늘 밤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Candice는 신학교에서 나의 이사야 수업을 청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시키는 연습 중 하나는 41장부터 48장까지에서 종에 대한 언급을 모두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것을 제외한 모든 언급이 분명히 국가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유익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분은 당신을 돌보실 것이며, 그분은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며,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혜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사명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는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 이제 나는 지금의 상황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연습이 있습니다. 49~55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 뭔가를 발견합니다.

하나를 제외한 모든 참고문헌은 사명을 지닌 종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단 하나의 참고문헌은 국가와 국가의 이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립플롭이 있습니다. 41부터 48까지의 모든 언급은 국가와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종이 됨으로써 받게 될 혜택에 대한 것입니다.

49절부터 55절까지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족과 세상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종을 가리키며 그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 11, 12, 13절을 보세요.

그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것은 어떤 종류의 문학입니까? 그것은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의 노래입니까? 칭찬해, 응, 응. 자, 이것은 소프트볼입니다. 제 생각에 그 찬양의 노래를 즉각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정확히 무엇? 정확해요, 정확해요.

이 찬양의 노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계시로 인한 기쁨의 노래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땅 끝에서부터 찬양할지어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한 만물과 해변과 거기 거민과 광야와 그 성읍들이 소리를 높이며 계달의 거주하는 마을들과 실라 거민들이 즐거이 노래하나이다

산 꼭대기에서 외치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해변에서 그의 찬송을 선포할지어다 이제 지리적으로 이 찬양은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세계 각국. 42장 1절부터 9장까지는 보편적인 찬양을 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그런지 묻습니다. 왜 여기에 하나의 예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 우리가 여기서 두 종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토론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명심하세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종 이스라엘에 관해 다음 여덟 장의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야 할 하인은 그 하인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무슨 일인지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이 소개를 했습니다.

좋아요. 글썄요,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4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포로 생활을 기뻐하셨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자제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내 아이들을 출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16절. 소경. 응.

응. 맹인과 귀머거리. 잃어버린.

예. 예. 여기 귀머거리야, 장님이구나.

내 하인 외에 눈먼 사람이 누구냐? 아니면 내가 보낸 사자가 귀머거리인가? 눈먼 하인과 귀먹은 메신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면 당신의 주장에 대해 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지만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의 귀는 열려 있지만 듣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의로 인해 율법을 크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다 구멍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므로 약탈당하고 노략을 당하는 백성이니라. 구출할 사람도 없이 약탈당하고, 돌려줄 사람도 없이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세상에, 그의 빛을 열방에 전할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켜져도 출구를 찾지 못하는 하인이 있습니다. 이제 24절과 25절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들이 유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그들을 유배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4와 25를 보세요.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 당신은 구원에 대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벨론은 우리를 우리 땅에서 끌어내고, 우리 도시를 파괴하고, 우리를 사슬로 묶을 만큼 충분히 강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이사야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까?”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당신을 포로로 잡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유배지로 보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그것들을 꺼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만일 바벨론이 그의 뜻에 반하여 그들을 빼앗았다면 그것은 정말 싸움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야훼가 바빌론보다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유배지로 보냈으니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꺼내주겠다.

그리고 바빌론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0장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육체는 다 그렇습니다. 잔디. 그러므로 43장 1절에 세 번째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나는 당신을 구속했습니다. 응.

난 너랑 같이있어. 내가 도와 줄게. 아,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셨는데도 제가 정말 망쳤습니다.

당신들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길을 떠나 도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당신의 구속주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분. 당신에게 자신을 주신 그분은 당신의 구속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 하십니다. 좋은 소식이군요.

3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희 구원자니라 이제 아마도 앞서 언급했듯이 배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3b는 Cyrus에 대한 참조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대속물로 주었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한동안 이집트를 정복했지만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집트를 점령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나머지 역사 동안 이집트를 계속 지배한 최초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를 자유롭게 해주는 대가로 사이러스가 이것을 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5절, 6절, 7절에서 그들을 땅의 각처에서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39년에는 이러한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지구 곳곳에서 돌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 생애에서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90%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1880년대쯤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결코 우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역사의. 나는 그것이 성경적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한다. 예? 5, 6, 7장은 주로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는 나머지 우리에게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 그건 우리 모두를 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 삶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그 약속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장, 6장, 7장은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 내 생각에는 그것은 특히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사례이자 성경의 영광스러운 구절 중 하나인 43:8-13에 이르렀습니다. 눈이 멀었지만 귀가 있고 귀가 멀었지만 귀가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내십시오. 내 증인을 불러라.

당신은 '맙소사, 이건 좀 위험해요'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모든 나라가 백성의 모임에 함께 모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선포하고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그들이 증인을 데려오도록 하고, 신들이 증인을 데려와 그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듣고 말하게 하세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증인을 데려오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택한 종이니라

하나님은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가? 10절 중간, 너희가 알고 믿고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주의 어떤 존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외부의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존재하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 음식, 물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지난 주 대부분을 아팠던 나는 오래된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우리는 뭔가 잘못될 때까지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러다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내 존재를 위해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내 삶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 이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나는 여호와라 내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제 다음 주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꽤 독점적인 발언이군요, 그렇죠? 내 말은,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언하고 저장하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말했는데,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으니 너희가 나의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그 사람이다.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는 일하는데 누가 그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제 다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당신이 내가 나가서 거리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나는 세상이 나에게 당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할 때마다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은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내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40년 전 파푸아뉴기니에서 가장 두려운 부족이 성경을 받았고 이제는 섬 전체의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증거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네 주위의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반드시 일어서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진실을 말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뿐입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눈이 멀 수도 있고, 귀머거리일 수도 있고, 멍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간증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제 성경 번역에 관한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43:13, 킹제임스 성경은 이 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일할 것이요 누가 허락하리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1613년에 이 단어는 예방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 ESV는 정확히 맞습니다. 나는 일할 것이고 누가 그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현대적인 번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어가 변경됩니다. 알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좋아요, 계속하세요. 여기 우리는 성경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또 왔습니다. 너희 구원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희의 거룩하신 이시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시요 너희의 왕이시니라.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맥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강. 그분은 구속자이십니다. 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당신의 구속주로 추가하시겠습니까? 왜 나는 주님이요, 너의 구속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강화를 말했다.

좋은 대답이군요. 그가 여기에 쌓이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아, 구속이 무엇을 포함할 것인지를 확장입니다. 거룩하신 분과의 관계입니다.

증인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 구원에서 그분의 역할.

그렇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시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은 유일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한 백성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력한 진술입니다.

이제 나는 다음에 올 일을 좋아합니다. 16-20절. 바다 가운데 길, 큰 물 가운데 길을 내시며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 내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눕고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되어 꺼진 것 같이 되느니라 심지.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집트. 이집트, 출애굽. 이제 다음에 무엇이 올지 보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며 등등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출애굽을 기억나게 하시는가? 바로.

그 여자에게 금별을 주세요. 예. 예.

과거에 내가 행한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종류의 신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하지만 지루함의 한계점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는 잊어버리세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그 말을 바로 뒤집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신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는 기억합니까? 알다시피, 누군가는 개종할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압니다. 전도예배 중에 그런 일이 있는데 27절에 '나와 똑같다'라는 초대가 있는데, 27절에 이 사람이 마침내 손을 놓고 통로를 질질 끌며 제단에 쓰러지는데,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한쪽 무릎이 아닌 두 무릎을 꿇고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한 후에는 일어서서 구원에 대한 간증을 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끔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오 와우.

그 사람이 우리를 구해줄 거예요? 아,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종 중 하나가 아이를 낳으매 바구니에 담아 유프라테스 강에 가두어 둘 터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를 찾아서 훈련시켜서 그러면 우리가 갈 준비가 되면 유프라테스 강이 둘로 갈라지고 우리는... 이번에는 내 이름도 모르는 이교도 황제를 이용할 것 같아요.

맙소사, 그러면 안 됩니다. 보다. 보다.

너무 아름다워요. 자연 속의 나의 성격에 대해 당신이 배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잊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너는 언제쯤이면 해가 서쪽에서 뜰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숨을 참지 마십시오. 자연이 갇혀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은 일정한 원리를 따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와. 그것과 42년의 새 노래 This is a New 사이에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5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연주할 것입니다. 내 생각은 당신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제, 아니, 내 말이 결실을 맺게 되겠지만, 이 말을 당신의 두뇌 능력에 따라 분류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결코 그것을 알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내 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이 없는 또 다른 것입니다. 자유롭게 인용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관되시지만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관되시지만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예측 가능하기를 원하므로 그를 상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좋아요, 이걸 끝낼 수 있는지 봅시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22~24절은 어렵습니다. 그건 바로 앞에서 말할게요.

야곱아 네가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피곤 하게 하였느니라 너는 번제할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돈으로 나에게 사탕수수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너희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만족시키지 아니하고 너희 죄로 나를 무겁게 하였느니라. 당신은 당신의 죄악으로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히브리인들이 잘하는 것 중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당신의 죄로 나를 무겁게 하고 당신의 죄악으로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심장.

심장. 응, 응, 응. 당신은 나에게 그 모든 제물을 주었지만 당신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시다.

너희는 계속해서 너희 죄와 불법 가운데 살면서 나에게 한 무리의 제사를 주면 너희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네 네 네 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 허. 당신은 계속해서 죄와 불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좀 더 솔직하게 말했다.

거기서 그는 그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

예, 예, 예. 나는 특히 가톨릭교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비극적으로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아주 아주 마술적인 견해였습니다. 글썄요, 저는 고백하러 가서 영주를 부르고 영성체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손가락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무서운 진술은 많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게 취함으로써 스스로 저주를 받아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설교를 들어본 게 언제였습니까? 응,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결론입니다. 나, 나는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 왜? 나를 위해서.

당신의 희생 때문도 아니고, 당신의 제물 때문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구약, 신약.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순종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시는 이시니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함께 논쟁합시다. 당신이 옳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도록 당신의 주장을 설명하십시오.

너희 시조가 죄를 지었고 너희 중재자들이 나에게 범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관리들을 욕되게 하고 야곱을 완전히 멸망시키며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리라. 나는 특히 이 22절부터 28절까지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언급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범법을 그만두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당신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자. 아버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곳에 남겨주신 놀라운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닌, 우리를 끝까지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살아 있는 증거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John Oswalt입니다. 이사야 42장과 43장 21회기입니다.